

마태복음 25장과 선교

- 성경 본문 마태복음 25:31~46
- 요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0절).
- 찬송 517장 (가난한 자 돌봐주며)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날)
- 이과의 목표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마태복음 25장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현재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한 사회적인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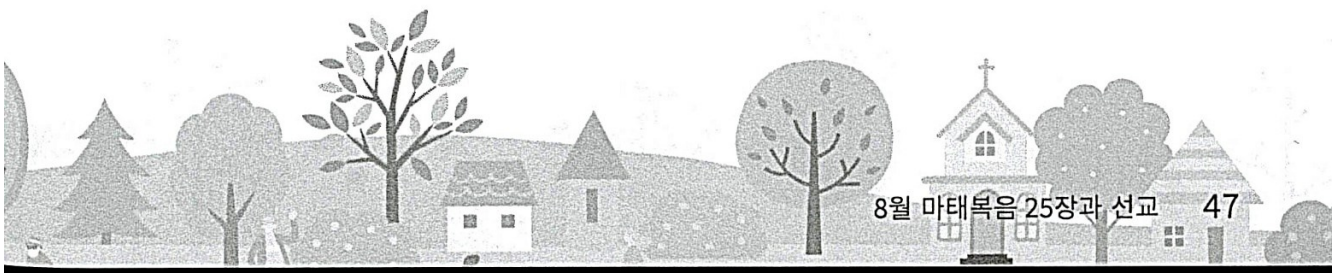


II. 생각 넓히기

1. 하나님의 선교 (The Mission of God)¹

선교에 있어서 지난 반 세기 동안 논의의 중심에 있었던 주제는 ‘하나님의 선교 (The Mission of God, *Missio Dei*)’입니다. 이 말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그 이전까지 행했던 모든 선교 활동에 대한 반성과, 선교 현장에서

1. 미국 장로교 (PCUSA) 규례서 2023~2025판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번역해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담았다.



제기되는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19세기를 가리켜 ‘위대한 선교의 세기’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서구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의 빛에는 제국주의/식민주의적인 선교 방식에 따른 현지의 거부감과 반발과 같은 그림자도 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이 주도하는 선교 활동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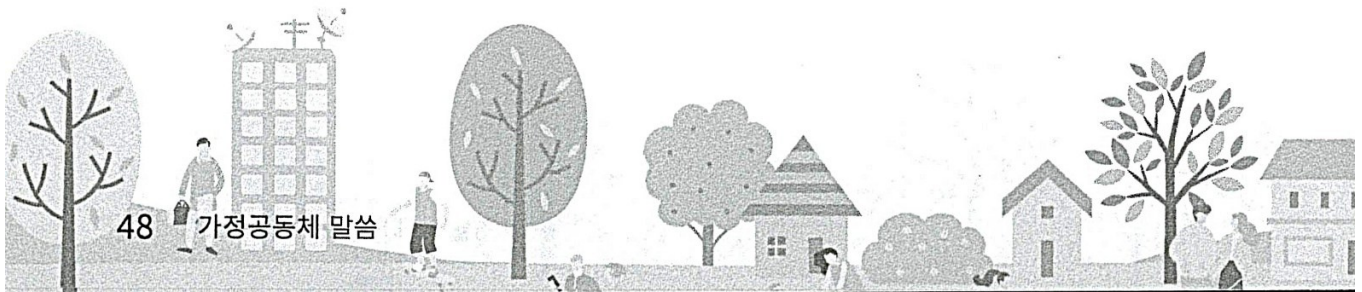
이러한 한계를 직시하면서 제시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Mission)에 동참해서 다양한 선교 (missions)를 감당하는 거룩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주체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습니다. 개인 전도와 교회 개척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선교의 역할과 정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선교를 세상에 여호와와 샬롬 (Shalom)²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샬롬에는 정의, 평화, 조화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이 땅에 온전한 샬롬이 임하게 하는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선교에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 마태복음 25장

이러한 깨달음에 기초해 볼 때, 마태복음 25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요청이고 당부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31-46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와 관련하여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한 개인이 온전한 샬롬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샬롬 안에 있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도

2. 샬롬(히브리어: שָׁלוֹם)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평화, 평안, 화목, 화평 등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좀 더 확장된 의미로 보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누리는 조화와 온전함과 웰빙을 포함하여 사람과 창조세계의 공존 역시 이 샬롬의 범주 안에 속합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제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이 본문의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확실한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총회는 ‘마태복음 25장 교회’가 되기로 결정을 했고, 그 후 2018년 총회에서 다음의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삼는 ‘마태복음 25장 비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활기찬 회중 만들기, 구조적 인종차별 철폐, 조직적인 빈곤 퇴치. 아래에서 이 세가지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3. 마태복음 25장 이니셔티브

- 1) **활기찬 회중 만들기:** 생명력이 있고 활기찬 회중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해 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도 개인이 먼저 하나님과 살롬을 누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다른 설명이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롬 5:10).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인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31-46에는 어떠한 삶을 사는 자들이 의인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온전한 살롬을 맛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살롬을 누리도록 도우며 살아갑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살롬을 누리는 사람만이 살롬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즉 살롬을 누리는 것은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의인이 되어야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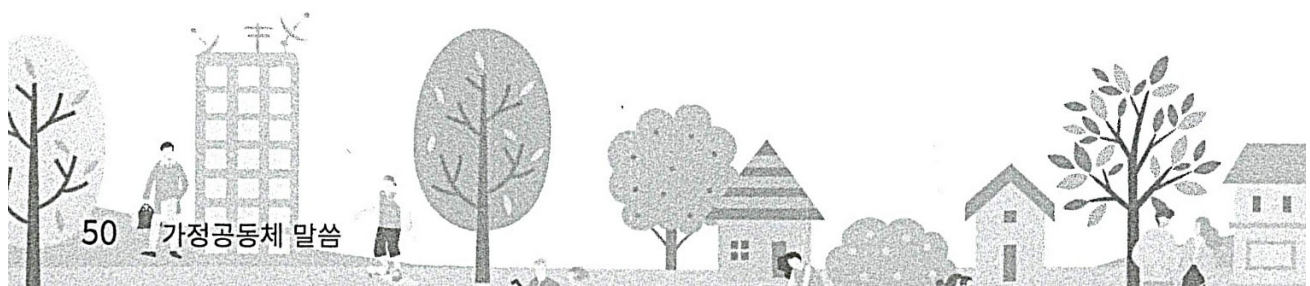


사회에 만연해 있는 죄악과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 회중은 진정으로 활기찬 회중이 될 것입니다.

- 2) **구조적 인종차별의 철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샬롬의 관계를 누리게 될 때, 그 샬롬은 우리가 이웃과 맺고 있는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엡 2:14). 자신이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멀리 있던” (엡 2:13) 사람들과도 샬롬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종 차별’은 이러한 샬롬의 관계를 방해하고 파괴합니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불이익을 가하고,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엡 2:13)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서로가 다시 멀어지게 하는 크나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지향하는 샬롬에 역행하는 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인종차별의 역사가 과거의 노예제도, 그리고 식민주의의 형태로 이미 위세를 떨쳤고, 현재에도 과거처럼 그렇게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사회 시스템에 녹아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인종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던 아시안/한인 사회도 지난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이 문제에 보다 진지하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타 인종을 향한 증오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11월에 LA 카운티 인간관계 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에 일어난 증오범죄는



2001년 이후로 최고 많았습니다.³ 이 범죄의 상당수가 폭력을 동반한 것이었고, 주된 피해자는 흑인과 유대인과 아시안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길을 걷어가다가 폭력을 당하는 아시안에 대한 사건들이 TV에 종종 보도되었습니다. 아시안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피부색이나 인종에 따라 동료 인간을 차별하는 행위는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은 유사한 외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존귀한 존재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3) **조직적 빈곤 퇴치:** 마태복음 25:31-46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어려움들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굶주림, 목마름, 이방인, 헐벗음, 질병, 투옥. 물론 이 여섯 가지 목록이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포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굶주림, 목마름, 헐벗음, 질병은 생존과 의식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빈곤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게으름이나 동기 부족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사실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법률이나 정책, 혹은 사회적인 관행들이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교육과 직업과 의료와 거주와 같은 영역들에서 보다 많은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3. hrc.lacounty.gov/2022 Hate Crime Report: Accessed on 3/06/2024.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러한 조직적인 빈곤의 문제에 대한 인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다 공정한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아래에서 궁핍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더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울러 현대 선교는 지역 사회 개발사역을 통해서 한 개인이 아니라 마을/공동체 전체가 함께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어 내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BAM (Business as Mission) 에서 BIM (Business is Mission)으로 바뀌어 가는 현대의 추세는 비즈니스가 선교 사역을 후원하기 위한 수단으로부터 비즈니스 자체를 선교로 이해하는 변화를 반영해 줍니다.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식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은 한 개인이 인간다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III. 생각살기

1. 개인적 차원에서 마태복음 25장 운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마태복음 25장 이니셔티브’가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세 가지 목표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혹은 더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